새시대 흐름에 걸맞는 미술저널 모색

美術誌의 현황과 과제

서성록
미술평론가

최근 들어 새롭게 발간되고 있는 미술지들은 대개 미술저널로서의 역할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고무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반면, 흥미본위와 상업주의에 물든 부정적인 측면도 벌써부터 나타나 미술계 일각의 근심과 우려를 사고 있기도 하다.

기성지 수준 능가하는 새 미술지들

6·29항쟁은 사회정치 영역의 현저하고 급격한 변화 뿐 아니라 문화예술 영역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다. 언론자유화가 잠재되어 왔던 민주화에의 욕구를 표출시켰다면, 출판등록의 완화는 우리에게 문화예술의 다양한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 기껏해야 순응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그것을 미술저널의 완성된 개념으로 인정하던 인식적 틀은 따라서 수정되어야 할 것을 요즘의 미술저널은 입증하고 있다.

새롭게 발간되고 있는 잡지들이 성격면 내용면에서 기존 미술지를 압도하는 질적 수준을 보여 줌으로써, 모더니즘 미술의 창구역할을 맡아왔던 오랜 전통의 종합미술전문지 「空間」을 비롯, 미술교양지 「월간미술」「미술세계」등 기존 미술지들도 체질을 개선하여 새 시대 흐름에 걸맞는 내용전달을 서두르고 있는 인상이다.

우선 가장 권위있는 미술지인 「공간」은 평문 중심의 아티클과 무게있는 전시회의 리뷰를 중점적으로 게재함으로써 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일관성 있는 잡지의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고, 중앙일보사에서 발행하는 「계간미술」은 올해부터 제호를 「월간미술」로 바꿈과 동시에 매월초 발간, 신속하게 미술계 동향을 알리고 알기 쉽게 미술현상을 풀이해 주고 있다. 두 미술지의 차이점은 「공간」이 여전히 미술전문인들을 위한 현대미술의 본질문제 및 해외미술의 기류 분석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면, 「월간미술」은 사회 속의 미술의 기능문제와 한국 리얼리즘의 분석과 그 전망의 문제에 치중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미술평론가협회에서 발행하는 「미술평단」은 학술지이다. 「미술평단」은 86년 이후 꾸준히 각호를 '모더니즘의 재검증' '한국화단의 여류들' '한국화의 오늘과 내일' '모더니즘의 그 이후' 등 미술계 및 평단의 본질문제를 특집으로 기획해오면서 우리 미술이 맞이하고 있는 주요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 발행된 미술지로는 가나화랑의 「가나아트」와 현대화랑의 「현대미술」을 꼽을 수 있다. 두 잡지는 공통적으로 개인화랑에서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미술의 쟁점을 다루고 해외미술의 현황을 폭넓게 전달함으로써 미술저널로서의 역할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고무적인 느낌을 받게 한다. 물론 「가나아트」가 교양미술지를 지향하고 「현대미술」이 본격 전문지를 표방하고 있기는 하나 편집구성의 면에서 둘 다 짜임새있게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은 미술지의 바람직한 위상에 대한 기대를 걸게 한다.

장르별 전문지 · 정보지 등 홍수

새 미술지는 이외에도 「주간미술」「디자인뉴스」「아트 뉴스」「아트 포스트」 등이 있다. 또한 미술학술지가 각 대학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 미술정보지, 서예, 동양화 등 장르별 전문지까지 합치면 그 수는 수십가지가 넘는다. 그리하여 일부 미술계 인사들은 벌써부터 저널의 범람 내지는 폭주현상을 근심하고 있다. '창간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의 몰지각한 미술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보면 이 같은 우려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새 미술지는 대체로 성격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내실을 기하고 탄탄한 기사를 내놓아야 할 판국에 '독점취재'니 '긴급진단'이니 하는 흥미본위와 상업주의에 물든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미술지는 경영상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료 지원이나 제작보조비를 마땅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방치되어 있음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순수 문학지가 진흥기금을 받아 잡지발간을 촉진하고 있음과는 달리, 미술전문지는 그 양적 증가에 아랑곳없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예술문화를 기름지게 할 뿐 아니라 매체문화의 또다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위해선 미술저널에의 아낌없는 지원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각종 미술지들은 경제난에 허덕이다 못해 여느 주간지같이 스캔들 위주의 조작기사, 저질기사에 자신의 운명을 내맡길는지 모른다.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런 저질잡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예측은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週刊美術
값 1,200원
'아름다운 生活을 위한 미술과의 만남'의 가교역할로, 미술생활의 정보지로서 저희 週刊美術은 미술을 하시는 이와 애호하시는 이의 교량의 '場'으로 보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 구독·광고문의 736-8181, 8182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55-1
美術新聞社

자연과 어린이
값 3,000원
이 나라의 새싹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튼튼한 과학교육의 바탕을 이루도록, 풍요로운 자연의 품을 활짝 열어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서관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7-3 (718)7031~7

리더스 다이제스트®
세계적인 교양잡지인 Reader's Digest의 한국어판을 자주적인 편집권으로 발행하여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정신문화와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는 발전하는 한국과 우수한 한국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구로구 독산1동 295-15
☎ 866·8800(교)376·397
발행처 : 동아출판사

월간 군사 Military Vision 비전
3·1절 기념특집
역사의 행간에서 건져올린 항일무장투쟁의 진모
항일 무장독립군의 실체
항일무장 투쟁전사/윤해동
항일 테러리스트들/유시현
나부끼지 못한 깃발, 광복군/김인호
해란강의 선구자/양홍준
재조명되는 백두산 신화/김영수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국가보안법/박인제
(주) 작은기획발행
서울 강남구 대치동 611 강남대학 빌딩 ☎553-2405~7